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 보스톤 한인들 태극기 흔들며 만세, 106주년 3.1절 기념식 가져

매사추세츠 한인회,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총영사관 공동 주최로 개최 80여명의 한인들 참가, 김순호 노인회 이사장 만세 삼창 선창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 지역의 한인들은 3월 1일 토요일 매사추세츠 앤도버에 위치한 북부보스톤한인감리교회에서 106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해 순국선열과 3.1정신을 되새겼다.

매사추세츠 한인회,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그리고 보스톤총영사관이 함께 주최한 3.1절 기념식에는 약 8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보스톤에서 만세삼창을 외치며 독립정신의 의미를 기렸다.

이날 기념식은 매사추세츠 한인회 양우석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애국가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어 보스톤에 거주하는 2세 학생인 이민술

### 〈전체 기사 읽기〉

(3), 김주희(4), 임하은(5), 이슬리(5), 박건후(9), 안예지(12) 학생 5명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해 의미를 더했다.

김재휘 총영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3.1절 기념사를 대독했으며, 새로 부임한 광정 열 부총영사, 지은석 영사를 소개하고 “새로 오신 영사들과 함께 동포 여러분들의 활동을 적극적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김총사는 또 “우리 2세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하니 3.1절의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고 말했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윤광옥 회장은 기념사에서 “3.1은 아주 자랑스러

▶▶2면으로 계속



3월 1일 앤도버에 위치한 북부보스톤한인교회에서 한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다

**THE PRO REALTY GROUP 수잔리 부동산**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선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애널리사이드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주지에 아플린터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 디지털 신문의 기사읽기가 더욱 편해집니다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과 지면보기에서 이제는 기사 읽기가 더욱 편해집니다 .  
PDF면에서 기사 읽기가 불편한 독자들은 해당 기사의 오른쪽 칼럼 위에 **전체기사 읽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바로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의 기사로 연결되어 웹사이트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하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세들의 3.1절 기념식,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뉴튼에 위치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3.1절 106주년 및 광복 80주년 기념식을 학교 강당에서 개최했다.

기념식에 앞서, 학생들과 교사들은 직접 제작한 태극기와 무궁화, 한반도 지도를 복도에 전시해 3.1절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으며, 학생들은 태극기를 들고 학교 강당에 입장했다.

이번 3.1절 기념식은 박현아 교사의 사회로 전교생과 학부모들이 함께 3.1절 노래를 제창하며 시작됐다. 남일 교장은 환영사에서 “해외에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삼일

절을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 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기미독립선언서 낭독하며 3.1운동의 뜨거운 외침을 되새기고, 1층 복도에 전시된 태극기와 한반도 지도 작품을 통해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 고 말했다.

### 〈전체 기사 읽기〉

김재휘 총영사는 학교 복도를 가득 채운 태극기와 한반도 지도, 그리고 태극기를 든 학생들로 가득찬 강당을 보며 “이렇게 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이 신호만 주면 지금 흔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진짜 감동적” 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총영사는 “1919년 3월 1일 우리 한민족은 당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반대하며 스스로 한국이 독립국가임을 전 세계에 선언하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바 있다” 고 3.1절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 총영사는 “보스톤에서도 1919년, 1920년 활발한 독립운동이 있었다” 며 “리그 오브 프렌즈 오브 코리아(League of Friends of Korea) 라는 단체를 결성했던 양유찬 선생의 발자취를 찾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고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재휘 총영사와 정 및 보조교사회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전교생이 만세삼창을 외치며 기념식을 마무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재휘 총영사와 새로 부임한 지은석 영사가 참석해 함께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 보스톤 한인들 태극기 흔들며 만세, 106주년 3.1절 기념식 가져

▶▶1면에 이어서

운 날이며1세기가 지났지만이 정신은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살아 있다” 며 “미국 이민의 역사가 120년을 맞아, 더욱 단결해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자” 고 말했다.

3.1절 기념식은 노인회 김순호


이사장의 선장에 따라 참석자 전원인 만세 삼창을 부르며 마무리됐다. 한인회는 마련한 떡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하며 한국의 정을 나눴다.

editor@bostonkorea.com

서울설렁탕  
겨울 특선메뉴

#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것이라" (이사야 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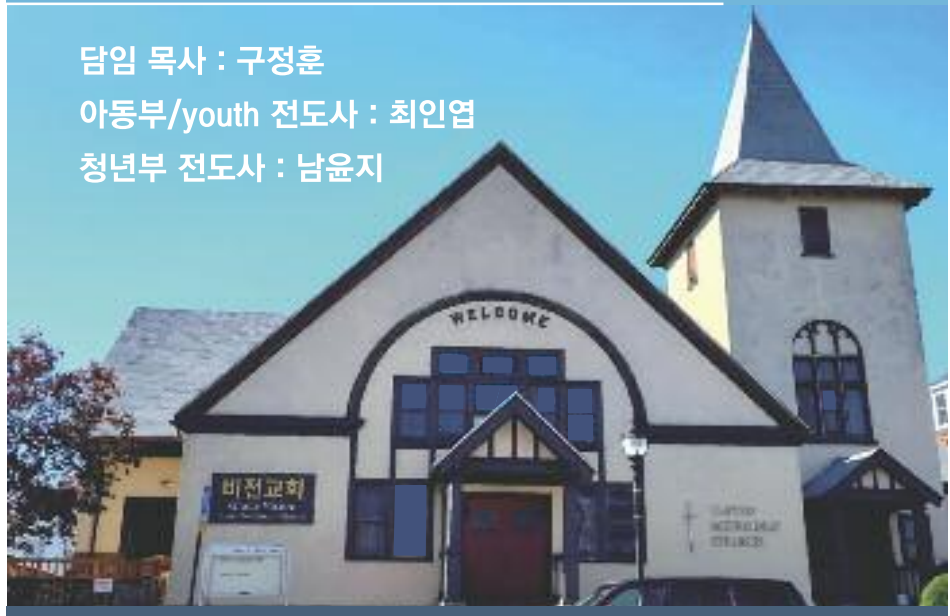
# 비전 교회

Grace Vision United Methodist Church

주일 예배 : 오전 10시 30분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는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담임 목사 : 구정훈  
아동부/youth 전도사 : 최인엽  
청년부 전도사 : 남윤지



545 Moody St. Waltham, MA 02453  
Tel: 910.670.4858 www.gracevisionumc.org



##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 3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and 2024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년 보스턴 매거진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로 선정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COMPASS**

Jason Jeon is a real estate broker affiliated with Compas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Source: MLSPin total sales 2023.

# 차분하지만 단호한 미셸 우 보스턴 시장, 의회 청문회서 존재감

### 이민 정책 두고 연방 의회에서 정면 대응... 보스턴 적극적 변화 재선 앞둔 미셸 우 시장에게 날개 달아준 공화당 의원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미셸 우 보스턴 시장이 연방 의회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거센 질문 공세에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강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번 청문회는 재선을 앞둔 미셸 우 시장에게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

5일 열린 하원 감독 및 정부 개혁 위원회 (House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청문회에 우 시장은 뉴욕의 에릭 아담스 시카고의 브랜든 존슨 덴버의 마이크 존슨 민주당 소속 대도시 시장들과 함께 출석했다.

우 시장의 이번 청문회 출석은 처음으로 연방 의회에서 증언한 자리였다.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을 상징하는 십자가 재를 이마에 묻힌 그녀는 긴장하는 기색 없이 차분했으며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신생아를 돌보는 여유도 보였다. 청문회가 시작되자 그는 공화당 의원들의 공세에 차분하며 날카로운 논리로 맞서며 보스턴의 정책을 적극 방어했다.

청문회에서 다른 시장들은 신중한 태도로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우 시장은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답변했다.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 위법인가?” 라고 직설적으로 묻자, 우 시장은 다른 시장들처럼 돌려 대답하지 않고 “네.” 라고 답변하며 사실을 회피하지 않았다.

이번 청문회는 공화당이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 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 소속 시장들을 불러 조사하는 자리였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정책을 문제 삼으며 보스턴을 포함한 대도시들의 연방 자금 지원 중단을 위협했다. 또한, 보스턴이 연방 이민법을 위반했다며 조사가 가능성을 거론했다.

우 시장은 이에 대해 “보스턴을 둘러싼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 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경 관리 책임을 맡았던 톰 호먼이 보스턴 경찰청장을 모욕하고 보스턴을 지옥으로 보내겠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강하게 대응했다.

우 시장은 “그가 보스턴과 경찰청장을 향해 거짓말을 하고 모욕한 것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 고 말하며 “보스턴 경찰청장을 향한 비난

〈전체 기사 읽기〉  
을 용납할 수 없다. 그를 선서 증언서에 불러 직접 묻자” 고 제안했다.

우 시장의 발언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매사추세츠의 에이나나 프레슬리 하원의원은 우 시장의 차분하면서도 강경한 태도를 높이 평가했다. 뉴멕시코의 멜라니 스탠스버리 하원의원은 “그는 생후 7주 된 아이를 키우면서도 네 시간 동안 공화당의 공격을 견뎌냈다” 며 존경을 표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우 시장을 집중 공격했다. 낸시 메이스 의원은 우 시장의 과거 발언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그를 ‘위선자’ 라 비난했으나 뉴욕타임스의 반박으로 바로 사실이 드러났다. 플로리다의 바이런 도널드 하원의원은 보스턴 시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민신분을 묻지 않는다는 우시장에 대해 불법 이민자 지원 예산을 명확하게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보스턴시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 시장은 단호히 반박했다. “보스턴 우리 도시에 대해 간섭하는 것에 지쳤다.” 며 보스턴시가 신용등급 최상인 트리플 A 를 받고 있다고 받아쳤다.

위원회 의장인 캔터키의 제임스 코머(James Comer) 하원의원은 “

연방 정부가 이민자 보호 도시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우 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시장들은 이에 반박했다. 모든 도시는 오히려 도시의 범죄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우 시장은 특히 보스턴의 치안 상태를 강조하며 강한 메시지를 남겼다.

그녀는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보스턴의 총기 폭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0년 만에 가장 낮은 살인율을 기록했다. 이것이 팩트다.” 답했다. 또한 이민자들이 보스턴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언급하며, 보스턴이 ‘민주주의의 요람이자 챔피언들의 도시’ 라고 강조하고 “보스턴은 이민자들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도시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고 말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우 시장과 다른 민주당 시장들이 연방 이민법을 위반했다며 법무부에 형사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플로리다의 안나 폴리나 루나(Anna Paulina Luna) 하원의원은 ‘형사 고발’ 을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를 “정치적 쇼” 라고 평가했다. 뉴욕 카도로스쿨(Cardozo School of



Law)의 피터 마르코비츠 교수는 “보스턴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의 정책은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보스턴 시민들도 우 시장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 바울 대성당에서 기도회를 열었고, 보스턴 시청 광장에서는 100 명이 넘는 시민들이 ‘우리 모두가 이민자다’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우 시장은 올해 재선 도전을 앞두고 있으며, 정치 신예이지만 강력한 상대인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구단 주아들 자시 크래프트(Josh Kraft) 와 경쟁하고 있다. 최근 다운타운의 상점점도 및 노숙인 마약거래 등으로 수세에 몰려 있던 우 시장은 워싱턴에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으며 선거운동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우 시장 측은 이날 청문회 이후 그의 발언을 소셜미디어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며, 지지자들에게 후원금을 당부하는 이메일에 그의 청문회 모두 발언을 첨부해 보냈다.

hsb@bostonkorea.com

# Pine Dental

Fitchburg, MA에서 여러분의 치아를 책임지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삶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394 water St.  
Fitchburg, MA 01420**

**Phone: 978.345.7400**

**Pinedentalpc@gmail.com**

#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MAR. 7th - MAR. 13th, 2025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SPINACH MUCHIM** 한국 밑반찬 하면 빠질 수 없는 시금치 무침!  
 H 마트와 함께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어보세요.  
 A must-have when talking about Korean side dishes-spinach muchim! Easy to make, healthy, and absolutely delicious!



**SPRING BRINGS DAYLIGHT SAVINGS** Please turn your clocks forward 1 hour on March 9th (Sunday) at 2am.  
 3월 9일(일요일) 새벽 2시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시계를 1시간 앞으로 당겨놓으세요.

|   |   |                                    |   |  |
|---|---|------------------------------------|---|--|
| <b>Premium Fuji Apple</b><br>프리미엄 후지사과<br>\$1.49/LB | <b>Garlic</b><br>마늘 5 PCS/PKG<br>\$1.99                 | <b>Kabocha</b><br>단호박 LB<br>\$0.99 | <b>Korean Sweet Potato</b><br>고구마 LB<br>\$2.49  | <b>Israel Persimmon</b><br>Fuyu Sharon<br>이스라엘 단감<br>\$12.99/BOX               |
| <b>Green Seedless Grape</b><br>씨없는 청포도 LB<br>\$2.99 | <b>Israel Orri Mandarin</b><br>이스라엘 오리 만다린<br>\$2.99/LB | <b>Ginger</b><br>생강 LB<br>\$2.99   | <b>Navel Orange</b><br>네이블 오렌지<br>3\$2 FOR 2 EA | <b>PULMUONE Tofu</b><br>풀무원 두부<br>SOFT/FIRM/SILKEN<br>16 OZ/PKG<br>3\$3.99 FOR |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   |  |
|---|--|
| <b>Fresh Beef Heel Meat</b><br>생 소 사태<br>\$8.99/LB                      | <b>Fresh Beef Top Blade Steak</b><br>생 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br>\$10.99/LB  |
| <b>Fresh Pork Baby Back Ribs</b><br>생 돼지 갈비<br>WHOLE PIECE/LB<br>\$3.99 | <b>Fresh Pork Single Belly</b><br>생 돼지 삼겹살 (수육용)<br>CHUNK/LB<br>\$7.99 |
| <b>Fresh Chicken Wing</b><br>생 닭 날개<br>FAMILY PACK/LB<br>\$3.99         | <b>Marinated Pork Single Belly</b><br>양념 돼지 삼겹살<br>LB<br>\$6.99        |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   |  |
|---|--|
| <b>Frozen Spicy Seasoned Octopus</b><br>매콤양념 주꾸미<br>17.6 OZ/PKG<br>\$7.99 | <b>Live Fluke from Jeju</b><br>제주산 활광어<br>PRODUCT OF KOREA/LB<br>\$19.99 |
| <b>Headless White Shrimp</b><br>흰새우<br>16-20'S/LB<br>\$5.99               | <b>Head-on Black Tiger Shrimp</b><br>머리있는 블랙 타이거 새우<br>1/3 LB<br>\$19.99 |
| <b>Frozen Branzino</b><br>브란지노<br>600-800'S/LB<br>\$5.99                  | <b>Frozen Mackerel Pike</b><br>꽁치<br>90-110'S/LB<br>\$2.99               |

**SMART CARD MEMBER ONLY**

|  |   |
|--|---|
| <b>KWANGCHEON Roasted Seaweed Living Box</b><br>광천 녹차김 리빙박스<br>\$14.99 (0.18 OZ X 16 EA) X 2 PKG/BOX | <b>PULMUONE Juicy Dumplings with Pork &amp; Vegetables</b><br>풀무원 육즙듬뿍 만두<br>\$9.99 21.2 OZ |
| <b>KYUNG BOK KUNG KOREAN BBQ Galbi-tang Beef Short Rib Soup</b><br>경복궁 갈비탕<br>\$9.99 19.4 OZ         | <b>HAITAI Honey Butter Potato Chip</b><br>해태 허니버터칩<br>\$9.99 1.05 OZ X 12 EA/BOX            |

|   |  |   |   |   |
|---|--|---|---|---|
| <b>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b><br>하루하루 쌀<br>\$14.99 15 LB                            | <b>RAW NATURE Brown Sweet Rice</b><br>자연담은 현미합쌀<br>\$14.99 15 LB                           | <b>NONGSHIM Champong Ramyun</b><br>농심 오징어짬뽕<br>\$6.99 4.37 OZ X 4 EA/PKG  | <b>HAIO Premium Seasoned Seaweed Flakes</b><br>해오름 밥도둑 김자반<br>\$3.99 1.41 OZ X 2 EA/PKG | <b>HAIO Seasoned Bean Paste [Ssam-jang]</b><br>해오름 사계절 원조 쌈장<br>\$3.99 2.2 LB |
| <b>SEMPIO Soy Sauce</b><br>샘표 진간장<br>\$4.99 RICH & MELLOW = 29 FL OZ RICH & SAVORY = 31.4 FL OZ | <b>ESENCIA Avocado Oil</b><br>에센시아 아보카도 오일<br>\$7.99 33.8 FL OZ                            | <b>CHUNGJUNGONE O'Food Korean Galbi Flavored Cake</b><br>청정원 오후드 숯불 딱갈비<br>\$9.99 14 OZ                                 | <b>AYAM YOOK Luncheon Meat</b><br>아얌육 런치미트<br>\$2.99 12 OZ                              | <b>FOODCELL Wide Vermicelli Noodles</b><br>푸드셀 납작당면<br>\$2.99 1 LB            |
| <b>CROWN Shin Zzang Snack</b><br>크라운 신짱<br>\$3.99 8.64 OZ                                       | <b>NAMYANG French Cafe Coffee Mix</b><br>남양 프렌치카페 카페믹스<br>\$13.99 2.44 LB (100 STICKS/PKG) | <b>Reversible Kitchen Mat</b><br>양면 싱크 매트 (올리브)<br>\$13.99-19.99 EA (S) 750 X 460 MM (M) 950 X 460 MM (L) 1200 X 460 MM | <b>SURLASANG Ga-on IH Frypan</b><br>수라상 가온 IH 후라이팬<br>\$23.99 30 CM EA                  | <b>DAHOC Massager</b><br>DAHOC 마사지기<br>\$0.99 EA                              |

**반찬단지** 한국 인기 브랜드인 반찬단지를 H 마트에서 만나보세요!  
 품질의 차별성과 기술의 바탕으로 고객의 식탁을 책임지는 반찬단지는 한국 전지역 전통시장 및 단체급식, 대형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에 공급함으로써 맛으로 인정 받았으며, HACCP, ISO22000, FSSC22000 등에서 인증받아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CUSTOMER SERVICE**  
 T. 877.427.736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o@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 코리언 헤리티지 심포지엄, 3월, 4월 온라인 무료강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이사장: 정정욱, 회장: 김병국)가 주최하는 코리언 헤리티지 심포지엄 (Korean Heritage Symposium)이 3월 20일부터 4월 목요일 매주 동부시간 저녁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열린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코리언 헤리티지 심포지엄은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넓히기 위해 각분야의 전문가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Zoom) 무료 교양강좌이며 주보스톤 총영사관의 후원을 받고 있다.

강의일정은 3월 20일 "한국 요리의 기반인 장과 쌀 (The Foundation of Korean Cuisine with Jang and Rice)", 3월 27일, "판소리, 한국의 소리 이야기 (Pansori, Korean Vocal Storytelling", 4월 3일 :한국의 현대 미술과 화가이쾌대 (Korean Mod-

ern Art and Lee Qowde", 4월 10일 "한국문학과 문화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의 순서로 진행된다.

3월 20일 첫 강의는 한국음식의 전통 식재료, 장류와 쌀을 주제로 라이언 김 (Ryan Kim) 김씨마켓 대표가 강의를 맡는다. 한국의 고유한 자연산 식재료를 선별해 미국 고급식당에 소개하는 이 커머스 (e-commerce)를 운영하는 김대표는 버클리대, 뉴욕대 정치 대학원 출신으로 파이낸스, 정부기관 등에 통계 전문가로 근무한 적이 있는 이색 경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3월 27일은 서울대학교 음대 국악과 교수인 안나 예이츠-루 (Anna Yates-Lu) 교수가 강의한다. 이 강의는 판소리에 대한 역사, 음악 및 문화적 특징과 조선시대의 삶 등을 다룰 예정이며 단순한 무형문화유산

〈전체 기사 읽기〉  
을 넘어 생동감 있는 서사적 문학 작품으로서의 판소리를 감상하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4월 3일의 한국 현대미술 강의는 진진영 뉴욕 스토니부룩대 찰스 왕 센터(Charles Wang Center)관장이 맡는다. 진관장은 최근 월북 천재작가 이쾌대의 삶과 작품을 재조명한 책, "한국 근대 예술과 전쟁과 망명 (Art, War, Exile in Modern Korea: Rethinking the Life and Work of Lee Qoede)"을 출간한 바 있다.

4월 10일에는 노요한 고려대 교수가 한국문학과 문화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노요한 교수는 한국 고대 문헌학으로 고려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MIT 글로벌 인문학 이니셔티브 (Global Humanities Initiative) 프로그램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심포지엄의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줌(zoom) 미팅과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동시 접속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스톤 한미 예술 협회 (<https://www.kcs-boston.org>) 웹사이트를 방문해 "등록 (register)" 버튼을 누르면 심포지엄 전에 줌 링크를 받을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 이번 주 일요일 3월 9일 서머타임 시작

미리 잠자리에 들어 신체 리듬 조절해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2025년 서머타임 (Daylight saving time)이 3월 둘째주 일요일인 9일부터 시행된다. 서머타임의 시작과 더불어 9일 새벽 2시가 새벽 3시로 1시간 앞으로 가게 된다. 'Spring forward Fall back' 으로 기억하면 쉽다. 서머타임은 비공식적이지만 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일몰이 지금보다 한 시간 늘어나 6시 30분까지 해가지지 않게 된다. 이에 야외활동 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여유를 1시간 정도 더 갖는다.

다만 아침에 한시간 일찍 일어나야 한다. 그동안 유지해온 생체 리듬의 변화를 초래하기에 일상에 적응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서머타임에 앞서 미리 20-30분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여야 비교적 적응이 빠르다고 조언한다.

서머타임은 1년에 두번씩 시간을 '당겼다 풀었다' 하며 6개월 간 쌓아왔던 신체리듬을 흔들



〈전체 기사 읽기〉  
놓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불법이민 단속에는 에너지를 쏟고 있으나 없애겠다는 서머타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 서머타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든 스마트 기기는 자동으로 서머타임 해제가 적용되므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직접 바꿔주어야 하는 벽걸이 시계, 오래된 차량의 시계는 토요일인 3월 8일 밤에 시계 침을 한시간 앞으로 돌려놓으면 혼동을 막을 수 있다.

서머타임 기간에는 보스톤을 비롯한 미동부 지역의 한국과의 시차가 현재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1시간 줄어든다. 서울의 시간은 미국 동부보다 13시간, 서부 보다는 16시간 빠르게 된다.

# 보스톤실로암교회

## Siloam Church of Boston

**주일예배 : 오후 1시(한글) / 2시 15분(영어)**  
**기도 모임 및 신앙 상담: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

**보스톤실로암교회 (Siloam Church of Boston)**  
6 Eddy Street, Waltham, MA 02453  
Cell: 857-540-1904  
담임 목사: 예성혜

#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 Dedicated to Your Health

###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mailto: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http://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   |   |   |   |   |
|---|---|---|---|---|
|  <p><b>이사 이계봉</b><br/>DIRECTOR<br/>781.654.5281<br/>jebong@bostonpremierrealty.com</p> |  <p><b>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b><br/>MARKETING DIRECTOR<br/>508.326.6285<br/>cove@bostonpremierrealty.com</p> |  <p><b>매니저 캐시 송</b><br/>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br/>414.313.4165<br/>kashong@bostonpremierrealty.com</p> |  <p><b>매니저 크리스틴슨</b><br/>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br/>773.968.2651<br/>cristina@bostonpremierrealty.com</p> |  <p><b>매니저 신보경</b><br/>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br/>508.361.6064<br/>bohin@bostonpremierrealty.com</p>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   |  |  |  |   |   |
|---|--|--|--|---|---|
|    | <br><b>폴리진</b><br>978.454.2043<br>lsh@bostonpremierrealty.com             | <br><b>니키 파크</b><br>617.447.0551<br>nikipark@bostonpremierrealty.com            | <br><b>피터 유</b><br>617.780.7833<br>peter.yu@bostonpremierrealty.com   | <br><b>지나 헤</b><br>978.866.3248<br>jinahe@bostonpremierrealty.com           | <br><b>여현주</b><br>401.535.3387<br>yehyunju1@gmail.com                |
| <br><b>사라 유</b><br>617.638.5787<br>sara.yoo@bostonpremierrealty.com        | <br><b>그레이스 김</b><br>617.455.7710<br>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    | <br><b>강수진</b><br>617.638.6973<br>kangsojin1@gmail.com                          | <br><b>파사연</b><br>213.563.0997<br>parksyeon@bostonpremierrealty.com   | <br><b>미키 헤</b><br>413.507.1402<br>mikihe@bostonpremierrealty.com           | <br><b>손장배</b><br>617.913.3588<br>sonsb@bostonpremierrealty.com      |
| <br><b>최진진</b><br>617.677.9387<br>heonjin@bostonpremierrealty.com          | <br><b>이영순</b><br>781.800.3412<br>leeys@bostonpremierrealty.com           | <br><b>박복숙</b><br>781.898.1214<br>parksb@bostonpremierrealty.com                | <br><b>최진진</b><br>617.510.1182<br>heonjin@bostonpremierrealty.com     | <br><b>이은근</b><br>617.643.8723<br>je@bostonpremierrealty.com                | <br><b>헤건기</b><br>604.611.0182<br>heongi@bostonpremierrealty.com     |
| <br><b>Tommy Woolfolk</b><br>617.274.5610<br>tommy@bostonpremierrealty.com | <br><b>Nancy Wang</b><br>617.230.8982<br>nancywang03@gmail.com            | <br><b>Shirley Zhao</b><br>857.221.0316<br>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 <br><b>Mian Yu</b><br>617.933.2713<br>mian.yu@bostonpremierrealty.com | <br><b>Xian Dole</b><br>413.527.8978<br>xian021@gmail.com                   | <br><b>Lu Jang</b><br>248.418.0117<br>luj@bostonpremierrealty.com    |
| <br><b>John Tran</b><br>617.638.9652<br>john@bostonpremierrealty.com       | <br><b>Rebecca Phu</b><br>617.823.1038<br>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 <br><b>Michael Somma</b><br>508.873.8076<br>michael@bostonpremierrealty.com     | <br><b>Linda Ta</b><br>657.210.8830<br>linda@bostonpremierrealty.com  | <br><b>Jun Wang</b><br>646.273.2823<br>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 <br><b>Lily Wang</b><br>617.938.7212<br>lily@bostonpremierrealty.com |
| <br><b>Crystal Wei</b><br>413.338.8285<br>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 <br><b>반문희 박</b><br>291.448.8589<br>hanna@bostonpremierrealty.com         | <br><b>재이그 김</b><br>781.596.0409<br>jei@bostonpremierrealty.com                 | <br><b>이성진</b><br>857.280.0434<br>is@bostonpremierrealty.com          | <br><b>Nini Bolanger</b><br>413.237.1886<br>nini111@bostonpremierrealty.com |    |



사진=보스톤발레

## 보스톤 발레 이상민, 백조의 호수로 화려한 주연 데뷔 ...스타 탄생 예고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발레 솔로리스트(soloist) 이상민씨가 27일 백조의 호수 개막 공연에서 남자 주인공 시그프리드 왕자역을 맡아 관객을 사로잡았다.

보스톤발레 입단 후 처음 주역을 맡은 이상민씨는 여 주인공을 맡은 빅토리아 캐피토노바와 완벽한 호흡은 물론, 1막과 3막의 솔로 무대에서 뛰어난 안무를 펼치며 관객 전체의 기립박수를 이끌어 냈다.

특히, 실제 왕자를 방불케 하는 준수한 외모와 기품으로 좌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에게 그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또한 그는 표정과 몸짓만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탁월한 연기로 보스톤발레의 남자 무용수 스타 탄생을 알렸다. 개막 무대의 남자 주인공으로 선택한 니시넨 감독의 신뢰에 대한 완벽한 보답이기도 했다.

보스톤글로브의 발레 전문 제프리 갠츠 기자도 "오데트 역의 빅토리아 캐피토노바와 시그프리드 왕자역의 이상민이 주연한 이번 공연은 왜 백조의 호수가 사실상 발레의 대명사로 불리는지를 입증한 무대였다"며 극찬했다. 그는 "이번이 이상민의 첫 주연 데뷔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며 감탄을 표했다.

### 〈전체 기사 읽기〉

갠츠 기사는 또 "그는 1막이 끝날 무렵 차이코프스키의 안단테 소스테누토의 어려운 흐름을 훌륭하게 유지하며, 시손느에서 랑베르쎬, 다시 푸르제테를 아라베스크 자세로 마무리하는 과정이 마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듯 보이게 만들었다. 3막에서는 높이 날아오르는 카브리올과 양방향으로 회전하는 더블 투어를 선보이며 탁월한 기량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여우 주연을 맡은 빅토리아도 화려한 테크닉과 섬세한 안무를 선보이며 완벽한 여주인공 오데트역을 소화해냈다. 갠츠 기사는 "지금까지 빅토리아가 공연했던 무대 중 최고였다"고 극찬했다.

개막 공연을 포함 두번의 공연을 마친 이상민씨는 3월 8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다시 한번 빅토리아 캐피토노바와 함께 주연을 맡는다.

한편, 한인 수석 무용수인 채지영씨와 한서혜씨도 여주인공 오데트 역을 맡아 공연한다. 보스톤발레의 백조의 호수는 3월 9일 일요일 채지영씨의 주연 무대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bostonkorean@hotmail.com

## 박찬모씨 로건공항서 올해의 머첸트 상 수상

###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건 국제공항은 박찬모가 로건 공항 내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에 로건커리토에 올해의 머첸트 상을 2월 19일 수여했다.

로건커리토는 그린 익스프레스(Green Express)이름으로 멕시코식 패스트푸드를 터미널 C와 터미널 E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 로건커리토는 좋은 음식 품질과 푸짐한 양으로 가성비 좋다는 소비자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박찬모씨는 "수상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우리도 충분히 주류사회에서 잘 할 수 있으며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다



'는 메시지를 한인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bostonkorean@hotmail.com

## 보스톤 산악회, 3월 15일 제6차 정기 산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산악회는 오는 3월 15일(토) 뉴햄프셔에 위치한 메디슨 마운틴(Mt. Madison, 5,367 ft.)으로 제6차 정기 겨울 산행을 떠난다.

이번 산행에서 A조는 왕복 8.4마일 메디슨 마운틴을 등반하며 B조는 왕복 7.4마일의 메디슨 스프링허트를 등반한다. 이날 날씨 상태에 따라 허트에서 트레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날씨가 좋은 경우 A조는 아담스 마운틴도 갈 수 있다.

산행 시간은 약 7-8시간이며, 난이도는 5단계 척도 중 4로 높은 편이다. 산행 2차 일 후 눈 덮힌 아름다운 프레지덴셜 레인지(Presidential Range)를 볼 수 있다

참가자는 크램폰(아이젠), 헤드랜턴, 스패츠, 배낭, 등산 스틱, 방풍 재킷, 우의, 장갑, 모자, 식수, 간편 중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등산화 착용이 필수다. 면티셔츠와 청바지 착용은 금지되며, 기능성 드라이핏 의류를 권장한다.

보스톤 산악회는 "겨울 산행에는 철저히

### 〈전체 기사 읽기〉

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아이젠을 꼭 지참하고, 해가 짧은 겨울철 특성을 고려해 헤드랜턴을 반드시 챙겨야 하며, 가능하다면 고글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행 당일 집결지는 뉴햄프셔 파크 앤 라이드(Park & Ride, RT93 Exit 2) 보스톤 익스프레스 버스터미널(10 Raymond Avenue, Salem, NH)이며, 오전 6시 30분까지 집결해야 한다. 참가비(차비)는 20달러다.

산행 신청은 3월 13일(목) 오후 6시 까지이며, 신청 시 희망 조, 집결 장소, 차량 동승 여부를 밝혀야 한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보스톤 산악회 공식 카페(http://cafe.daum.net/bostonmountaineer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상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산행 전날 카페를 꼭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문의 사항은 (617-780-9588(들꽃향기))로 연락하면 된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MAR. 6<sup>TH</sup> - MAR. 13<sup>TH</sup>, 2025**

“엄선된 원료를 한 병에 정직하게 담아낸”

**KWANGDONG  
SSANGHWATANG  
광동 쌍화탕**



**\$10.99**

~~\$16.99~~

100 mL X  
20 BTLS/BOX

BURLINGTON & QUINCY STORES ONLY



**LG KIMCHI FRIDGE 120 L  
LG 김치 냉장고 120 L**

~~\$1099.99~~

**\$849.99** EA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 집 에퀴티 떼어 주면 현금 주는 핀테크... MA 검찰, 소비자 기만 고소

핀테크 홈탭, 홈에퀴티 현금화 상품 제공, 추후 최대 집값 20% 회수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주택 소유자 대상 불공정 행위 혐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 검찰이 보스톤에 본사를 둔 핀테크 기업 홈탭 에퀴티파트너스(Hometap Equity Partners, 홈탭)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안드레아 캠벨 매사추세츠 검찰 총장은 지난달 19일 접수한 소장에서 "홈탭이 재정적으로 취약한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이고 약탈적인 관행을 통해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설립된 홈탭은 빚을 내지 않고 홈에퀴티를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미국 내 신생 기업 중의 하나로, 현재 미국 내 약 20개 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회사가 주택 담보 대

출 및 압류 방지법을 포함한 매사추세츠주의 소비자 보호법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위반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홈탭은 전통적인 홈에퀴티론(Home Equity Loan)과 달리 매달 상환금을 요구하지 않고, 초기 지급금을 투자 형식으로 전환해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최대 집값의 20%를 반환받는 구조다. 그러나 검찰은 이 계약이 사실상 소비자를 불리한 조건으로 묶어두는 "역모기지 대출의 변형"이라고 주장했다.

캠벨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홈탭은 재정적으로 취약한 주택 소유자들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면서, 이들의 소중한 주택 자산을 빼앗고 과도한 압류 위험에 처하게 했

**<전체 기사 읽기>**  
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매사추세츠주 서쪽 고등법원에 접수됐으며, 검찰은 홈탭의 불법적 영업 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 소비자들에게 재정적 보상을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판결을 요청했다.

홈탭측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우리 제품의 신뢰성과 매사추세츠 주택 소유자들에게 제공하는 금융적 유연성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매사추세츠 검찰과 건설적인 대화를 시도했으나, 우리의 노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검찰이 근거 없는 주장에 기반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홈탭의 '주택 자산 투자(Home Equity Investment)' 상품은 일반적으로 10년 계약으로 운영된다.

검찰은 특히 "홈탭이 주택의 가치 평가 시 이를 고의적으로 낮추고,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금액이 실제 주택 자산 가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홈탭이 소비자의 소득, 고용 상태, 기타 자산 등을 평가하지 않은 채 빠른 현금을 제공하며, 신용 점수가 낮거나 은퇴자 등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주택 소유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홈탭은 자사의 금융 상품을 대출이 아닌 '투자'로 홍보하고 있지

만, 검찰은 이를 불법적인 역모기지 대출로 규정하며 "상품의 높은 비용과 본질적인 면모를 소비자들에게 기만적으로 숨겼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홈탭의 10년 만기 계약 이 종료된 사례는 없지만, 검찰은 "앞으로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많은 주택 소유자가 압류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은 이들의 영업 활동이 매사추세츠주 내 수백 명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고 및 피해 보상 절차는 매사추세츠주 검찰 홈페이지 (mass.gov/ago/consumercomplaint)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 홈탭, 어떻게 에퀴티 현금화 상품을 운영하나?

살다보면 현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다. 집 소유한 경우 에퀴티(현재 시가에서 남은 모기지 잔액을 뺀 실제적 소유금액)를 통해 대출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다. 그러나 홈탭은 빠르게 현금을 제공한다. 돈이 쉽게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이 이면의 함정이다.

1. 홈탭이 집의 가치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평가한 집값이 50만 달러라고 하면 홈탭은 즉각 이의 10%에 해당하는 5만 달러를 제공한다.

2. 일반적으로 10년 후 이 금액을 원금과 이자를 합쳐 전액 상환하는데 기간에 따라 상환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집값이 오른 경우 3년 이내에 갚으면 상환 당시 집 가치의 15%, 4년에서 6년 이내에 갚으면 17.8%, 10년에 갚으면 20%를 상환한다.

3.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진 집 가치 평가금액의 15%를 갚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집값이 한해 평균 4.34%로 오른다고 하면 10년 후 집값은 \$764,678가 된다. 5만 달러를 현금으로 받은 소유자들은 향후 \$764,678의 20%인 \$152,936을 홈탭에 갚아야 한다. 10년 후 이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이 집은 압류될 가능성이 많다. 5만 달러를 연리 4.34%의 재무성 채권에 투자했다면 10년 만기 금액은 7만 6천여 달러에 불과하다. 따라서 5만 달러를 빌린 대가는 흑독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집값이 한해 평균 4.34%로 오른다고 가정하고 3년 후에 전액 갚을 경우 집값은 \$567,965이기에 이의 15%는 85,195이다. 불과 3년만에 3만 5천 달러 이상을 이자로 지불해야 하는 구조다.





**KIM LAW OFFICE**

##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 형제 댁집

**(현재 영업중)**

## 978.343.6080

##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http://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 617.543.8106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 뉴베드포드행 등 사우스 코스트 레일 65년 만에 철도 서비스 개통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교통공사(T)가 이달 말 보스톤 남동쪽 해안 도시들을 연결하는 사우스코스트레일(South Coast Rail)의 열차 운행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65년 만에 처음으로 폴리버(Fall River), 뉴베드포드(New Bedford) 등 여러 지역에 통근열차인 커뮤터레일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T에 따르면, 해당 노선의 운행은 연방 규제 당국의 승인에 따라 오는 3월 24일부터 시작된다. 신규 개통되는 역은 톤턴(Taunton), 프리타운(Freetown), 뉴베드포드, 미들보로(Middleboro), 폴리버 등 총 6곳이다. T는 기존 미들보로/레이크빌(Middleborough/Lakeville) 노선을 타운턴, 뉴베드포드, 폴리버까지 연장했으며, 열차 운행 개시 이후 해당 노선명을 '폴리버/뉴베드포드 노선'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T는 새로운 열차 서비스 개통을 기념해 3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주말 및 4월 21일 패트리엇 데이

(Patriots Day) 동안 신규 6개 역에서 승·하차하는 승객들에게 무료 승차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역에서의 환승 주차도 4월 30일까지 무료로 제공되지만, T는 주차장이 조기 만차될 경우 무료 주차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평일 주차 요금은 하루 4달러, 주말 및 공휴일에는 2달러가 부과될 예정이다.

공개된 일정에 따르면, 뉴베드포드에서 보스톤 사우스 스테이션까지의 주중 운행은 하루 14회이며, 첫 열차는 오전 4시 27분에 출발한다. 폴리버에서 보스톤까지는 15회 운행되며, 첫 열차는 오전 5시 5분에 출발한다. 일부 열차는 이스트 톤턴(East Taunton)에서 환승(transfe)이 필요하다.

보스톤에서 폴리버 방향으로 가는 주중 열차는 총 16회 운행되며, 첫 열차는 오전 6시 45분, 마지막 열차는 밤 11시 59분에 출발한다. 뉴베드포드까지 가는 승객은 이스트 톤턴에서 연결편으로 환승해야 한다.

### <전체 기사 읽기>

주말에는 뉴베드포드에서 보스톤까지 총 7회 운행되며, 첫 열차는 오전 4시 47분, 마지막 열차는 오후 9시 53분에 출발한다. 폴리버에서 보스톤까지는 총 6회 운행되며, 첫 열차는 오전 6시 37분, 마지막 열차는 오후 9시 53분에 출발한다.

보스톤에서 뉴베드포드 방향의 주말 운행은 총 8회이며, 첫 열차는 오전 6시 37분, 마지막 열차는 밤 11시 59분에 출발한다. 보스톤에서 폴리버로 향하는 주말 열차는 총 8회 운행되며, 첫 열차는 오전 9시 50분, 마지막 열차는 밤 9시 59분에 출발한다.

T의 사우스코스트레일 개통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항상 정체를 겪던 보스톤 남쪽 고속도로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도 있을 전망이다. 베드타운으로 가지 또한 일부 상승할 수도 있다.

hsb@bostonkorea.com



# 아시안어메리칸커미션, 트럼프 행정부 2기 정책 대응 방안 논의

### DEI 폐지 위기 속 단합과 대응책 모색

**(애머스트=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아시안어메리칸위원회(Asian American Commission, AAC) 회의가 스프링필드 소재 유메스 애머스트 헨리토머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아시안 소수민 우대정책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미국 사회내 아시안 커뮤니티의 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는 리처드 추 커미셔너의 진행 아래 다채로운 의제들이 논의됐다. 차로아 아시안어메리칸상공인회 회장은 "아시안 스몰비즈니스들도 흑인 상공인회, 라틴 상공인회처럼 단합하고 상호협력해야 한다"며, 커뮤니티 간 공조를 통한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미 정치력 신장 연대의 김성혁 대표는 최근 스프링필드 시내에서 발생한 한인 동포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치안

### <전체 기사 읽기>

당국이 아시안 커뮤니티의 안전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문제와 관련된 통계 발표도 이루어졌다. 에스터 김 검찰 연수생은 "2022년 이후 아시안계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흡연비율이 예년에 비해 40% 이상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아시안 커뮤니티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지원 정보를 활발히 공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차세대 아시안어메리칸들이 주류 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논의를 마친 후, 지역 베트남 식당에서 준비한 점심을 나누며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hsb@bostonkorea.com

**YOUNG DENTISTRY**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중은치과, 좋은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 보스톤서 주 경찰관 폭행당해... 10여 명이 체포 저지하며 공격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에서 범죄 혐의자 체포를 시도하던 주 경찰(State Troopers)들이 10여 명의 무리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경찰을 팔로 목을 감싸고, 주먹과 발길질로 공격했다고 당국이 밝혔다.

매사추세츠주 경찰대변인은 28일 성명을 통해 “이들은 경찰이 체포를 진행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해했으며, 위험한 헤드록과 기타 폭력을 사용해 부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총기 폭력으로부터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에 대한 폭력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류한 보스톤 경찰이 현장에서 사태를 진압하며 미성년자 1명과 성인 1명을 체포했다. 주 경찰도 다른 미성년자 1명을 체포했으나, 체포된

성인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한 명은 총기 소지 혐의로 수배 중이었으며, 다른 한 명은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27일 오후 3시경 보스톤의 락스베리(Roxbury) 지역에서 시작됐다. 당시 함께 순찰 중이던 주 경찰은 총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두 명의 미성년 남성을 발견하고 접근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17세 소년 한 명을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으나, 다른 미성년자는 도주하며 무기를 버렸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수색했으나 찾지 못했다.

잠시 후 보스톤 경찰은 “총격 발생”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신고된 용의자의 인상착의는 앞서 도주한 미성년자와 일치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 경

**〈전체 기사 읽기〉**  
찰은 세 명의 남성이 한 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이들은 식당을 나와 주차된 차량으로 이동해 경찰의 눈을 피하려 했다고 당국은 전했다.

경찰이 이들을 차량에서 끌어내려 검문하는 과정에서 남성들은 격렬하게 저항하며 주 경찰을 폭행했다.

주 경찰 발표에 따르면 “경찰이 용의자들을 체포하려 하자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와 경찰을 땅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차며 추가 체포를 막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건은 계속 조사 중이며, 당국은 추가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보일스턴 스트리트

## 보스톤 중심가 보일스턴 스트리트서 칼 휘두른 남성 경찰 총맞아 사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에서 가장 변화한 지역인 백베이 보일스턴 스트리트에서 칼을 든 남성이 봄베는 레스토랑에 난입해, 근무를 마치고 식당에 들른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이 사건은 3월 1일 토요일 가장 봄베는 시간인 오후 5시 27분, 두 남성이 칼을 든 한 남성을 피해 레스토랑으로 도망쳐 들어가면 서 발생했다. 칼을 든 남성은 이들에게 칼을 휘둘렀다.

마침 근무 후 음식을 픽업하려 식당에 들렀던 경찰이 신분을 밝히고 칼을 든 남성에게 무기를 내려 놓을 것을 명령했다. 이 남성은 이를 거부하며 대치했고 경찰은 총을 발사했다.

구급대가 이 남성을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병원에서 사망했으며, 경찰은 사건 후 스트레스 검

**〈전체 기사 읽기〉**  
사를 받았다. 마이클 콕스 경찰 청장은 경찰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서푼카운티 지검은 비디오를 분석하고 주위 목격자들을 조사하며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더 많은 목격자들이 이를 증언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케빈 헤이든 지검장은 “사망자의 유가족과 지인들에게 위로 드린다”고 밝혔다.

헤이든은 사망자가 32세의 엘마크 자라밀로였으며 다른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미셸 우 시장은 사망자 가족에게 위로를 전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시민들에게도 위로를 전했다.

hsb@bostonkorea.com

###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 New Nest Construction LLC

뉴네스트 건축

Residential Construction ranging from small handyman jobs to brand new construction. No job is too small.

Fully Licensed GC and HIC  
Licensed Realtor at BA Property and Lifestyle Advisors

Phone:  
Thomas 339.227.7797  
Ruban 978.908.7390



# 금리 내리면서 주간 모기지 신청 20% 급증

### 금리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 수준 6.73%로 하락 리파이낸스 신청 37% 급증...주택 구매자들도 적극 참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모기지 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대출 신청이 급증, 그동안 부진했던 주택 시장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CNBC가 모기지은행협회(MBA)을 인용 보도한 것에 따르면, 지난주 총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20.4% 증가했다. 이는 최근 3주간 감소세를 보인 이후 처음으로 반등한 것이며, 주간 기준으로 이례적으로 큰 폭의 증가다.

금리 인하가 대출 수요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대출 한도 80만 6,500달러 이하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의 평균 금리는 6.88%에서 6.73%로 하락했다. 이는 2024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모기지 금리가 하락 추세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MBA의 경제학자인 조엘 칸(Joel Kan)은 "소비자들의 경제 전망 약화와 최근 미국이 부과한 새로운 수입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금리 하락을 초래했다"며 "이러한 요인들이

2024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금리 하락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금리 인하에 따라 재융자(refinance)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리파이낸스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37%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83% 급증했다. 현재 대다수의 집 소유주들은 기존에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재융자 시장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2년 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번 금리 하락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신규 모기지 신청도 증가했다. 지난주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신청 건수는 9%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 높은 수준이다. 조엘 칸은 "봄철 주택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구매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신청 건수는 향후 시장 전망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사 읽기>**

하고, 전반적인 구매 수요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높은 주택 가격과 한정된 매물, 그리고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면서, 건축 자재 비용 상승으로 신축 주택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주 들어 모기지 금리는 소폭 추가 하락했다. 모기지 뉴스 데일리(Mortgage News Daily)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새로운 관세 조치가 발효된 지난 화요일 채권 및 주식 시장은 급등락을 반복했다.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모기지 금리도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이후 반등하면서 일부 대출 기관들은 다시 금리를 소폭 인상했다.

모기지 뉴스 데일리의 최고운영 책임자(COO) 매튜 그레이엄(Matthew Graham)은 "주식과 채권이 다시 반등한 만큼 대출 기관들은 금리를 다시 상향 조정했다"며 "단기적인 하락 효과가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 "돈 쓰는 게 무서워"...본격화한 '관세전쟁'에 움츠린 소비자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돈 쓰는 게 무서워졌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 사는 테라 빈센트(46) 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1년 반 전 은퇴한 그는 최근 낡은 주방을 리모델링하고 새 차량을 구입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그는 달걀과 육류 등 식료품 가격이 오르는 것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 추진 중인 고관세 정책으로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캐나다·멕시코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상품에는 지난달 10%에 이어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내달 2일부터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품목에 25%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고도 예고했다.

문제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결국 물가에 반영돼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 싱크탱크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라이언 스위트는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은 이미 불안해하고 있고, 그들은 실제 제품에 붙은 가격표를 보고 충격을 받

**<전체 기사 읽기>**

을 것"이라며 "백악관의 조치는 빠르고 거세게 이뤄지고 있고, 소비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짚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업체 유거브가 지난 1~4일 미국 성인 1천6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인해 미국의 기업과 국민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수출국이나 수출국 등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또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는 응답은 68%에 달한 반면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8%에 그쳤다.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옹호 목소리도 있다.

자신을 공화당 지지자라고 밝힌 테네시주 컬럼비아 주민 테린 스톨(36)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광기'에는 전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는 미국을 더 자립적, 독립적인 나라로 다시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해서 소비 습관을 바꾸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hrseo@yna.co.kr

**성 안토인 디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평일미사**  
화요일 /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 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기금 동결 조치 무기한 차단

연방 법원, 행정부의 의회 권한 침해, 민주주의 근본적 훼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방 기금 동결 조치를 무기한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행정부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임의로 동결할 수 없도록 확인한 법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로드아일랜드 연방 지방법원의 존 맥코넬 주니어 판사는 6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해야 할 연방 기금을 동결하거나 지급을 지연시키는 조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판결문에서 "행정부의 연방 기금 동결 조치는 정부 각 부문의 헌법적 역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행정부가 의회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5일 워싱턴 DC 연방 법원이 유사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나온 것으로, 맥코넬 판사는 앞서 내렸던 임시 금지 명령

(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영구적 효력을 가진 금지 명령(injunction)으로 전환했다.

이번 소송은 안드레아 캠펠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을 비롯, 22개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과 워싱턴 DC가 공동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연방 기관에 내린 지침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며, 주 정부가 승인된 기금을 적절히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OMB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해당 지침을 즉각 철회했으나 각 주 정부는 의회가 배정한 예산을 부적절하게 지출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초의 OMB 지침은 주 정부, 비영리기관, 그리고 의회 등이 어떤 프로그램이 중단됐는지 확인하는 혼동을 초래했다.

맥코넬 판사는 최초 임시 금지 명령에서 각 주 정부에 보조하는 자금

〈전체 기사 읽기〉

을 동결하거나, 취소, 중지하지 않도록 했다. 각 주 정부들은 행정부가 여전히 자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당초의 금지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추가적이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프로그램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 집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맥코넬 판사는 판결문에서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내린 명령이 공중보건, 교육, 기타 공공서비스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러한 기존의 방식처럼 재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워싱턴 DC 연방 법원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자금 지원 철회 결정을 뒤집고, 약 20억 달러의 해외 원조 계약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5일 보스톤 연방 법원은 국립보건원(NIH)의 연구비 지원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막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개발처 자금 지원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같은 필수 복지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해외 원조, 다양성 지원 프로그램 등의 예산을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법원의 반대로 상당 부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hsb@bostonkorea.com



지팡이 들고 트럼프에 항의하는민주당 소속 그린 하원의원

## 하원, '트럼프 의회 연설 항의' 민주당 의원 '견책' 공식 징계

공화당 주도로 결의안 가결...민주당 10명도 찬성표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

파원 = 미국 연방 하원은 6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당시 항의하다 퇴장당한 민주당 소속 앨 그린 의원(텍사스)에 대해 '견책'(censure) 징계를 내렸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그린 의원에 대한 견책 결의안을 찬성 224명, 반대 198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해당 결의안은 공화당 소속 덴 뉴하우스 의원(워싱턴)이 전날 발의한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이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로이터는 "민주당 의원 중 10명이 결의안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전체 기사 읽기〉

현재 하원은 공화당 218명, 민주당 214명, 공석 3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린 의원은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들고서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으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제재에도 항의를 이어가다 결국 퇴장당했다.

견책은 의원에 대한 엄중한 수준의 징계이지만, 공개적인 질책과 비난 이상의 실질적인 처벌을 수반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CNN 방송은 "한때 하원에서 드물게 나오던 '견책' 징계가 최근 몇 년간 자주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min22@yna.co.kr



###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13) 주식 투자 실패 원인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주식시장이 최근 고공행진하고 있다. 2년 연속 23% 그리고 24% 상승이다. 본인만 뒤처지는 것 같아 주식시장에 열심히 귀를 기울인다. 어느 종목에 어느 시점에 투자하는가 결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시점에 의한 투자 결정은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지기 쉽다.

투자의 기본 원칙은 본인의 재정 상황에 의해서 투자해야 한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주식시장 오르고 내림에 상관없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함이 없다. 주식을 사고 판다고 해서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투자가 아니라 도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하는 투자의 기본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본다.

투자하는 목적 진술서 작성이 필요하다. 투자 목적에 따라서 포트폴리오(Portfolio)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학자금 마련, 집을 마련하기 위한 다운페이(Down Payment), 노후대책, 등 얼마만 한 시간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투자 위험성을 조절할 수 있다. 단기 기간에 필요한 자금은 방어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몇십 년 후의 은퇴 자금은 투자 위험을 더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기업 종목을 선택하거나 펀드 매니저가 운용되는 뮤추얼 펀드를 선택하면 주식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겸손이 필수이다. 유망한 기업을 선택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투자 비용이 매우 저렴한 인덱스 펀드나 ETF를 통해서 '평균' 수익률을 기대하면 투자한 자금이 불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

금융 방송 등이 24시간 끊임없다. 그러나 CNBC와 Fox Business의 투자에 관한 소식은 재미있을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가치는 없다. 단기 투자를 조장하여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 미디어를 끄고 스마트폰에서 금융 앱을 삭제하는 것도 투자하는 데 유익하다.

투자하는데 은근과 끈기가 부족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금융 시장에서의 인내는 몇 년, 때로는 수십 년이다. 21세기의 첫 10년은 누적 1%의 손실로 미국 주식 투자자

들에게 친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대 10년은 연간 수익률이 13.4%, 그리고 지난 5년 연간 수익률이 무려 12.54%이다. 이처럼 주식시장이 하락하기도 하지만, 그다음 10년 후는 놀라운 수익을 창출한다. 주식시장 역사가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큰 이정표를 제시해 준다.

옆집에 고급 자동차와 잦은 해외여행 소식과 어떤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마음이 심란하고 조급해진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투자 성과와 본인의 투자 성과를 비교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투자 성공은 상대적인 성과가 아니라 본인이나 가족의 재정적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친지들의 투자 성공 무용담(?)에 숨어있는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주식시장이 두려워서 너무 소극적으로 투자한다. 이것은 물가 상승만큼 수익을 받지 못한다. 물가는 구매력을 연간 약 2-3% 감소시킨다. 현금 투자는 물가 때문에 매년 손실이 보장되는 것이다. 주식의 역사적 수

익률을 이해하고 주식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주식 통계에 따르면 S&P 500은 어느 날 하루 하락할 확률은 46%이고 어느 한 해에는 손실을 볼 확률은 27%이지만, 10년 동안 손실을 볼 확률은 5%, 20년 동안 0%로 떨어진다.

금융상품에서 말하는 '투자 보장' 유혹적인 말이지만, 낚시밥에 걸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변액 연금(어뉴이티), 주가지수 연금, 현금 가치 종신보험, 등은 투자와 보험을 혼합한 것이다. 이런 금융상품은 매우 복잡해서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상품을 만든 금융회사와 상품을 판매한 영업인은 수수료 등으로 돈을 벌 수 있지만, 투자한 사람은 그만큼 손실로 이어진다. 투자와 보험은 분리해야 한다.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은 투자 목적이 아니다. 동부에서 서부 여행할 때 어떻게 가는 지 계획이 없다면 영원히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제대로 하는 투자로 우리 모두 안락한 은퇴 생활로 이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북미최대 안마의자 전문업체 **OTA WORLD**가

## 프랜차이즈 및 가맹점주를 모집합니다!

Osaki+ Promo Video ▶



캐롤린 본점 | 1001 W Crosby Rd, Carrollton, TX 75006



“안정적인 소자본 창업  
(5만에서 10만)  
간편한 매장 운영”  
※ 16개 주 34개 스토어 오픈 성업중

▶ 점주는 판매만 하시면 됩니다

※ 배송부터 워런티까지 본사가 책임집니다

- ☑️ 세고
- ☑️ 배송
- ☑️ 상담
- ☑️ 워런티

대표 | John Lee  
214-504-6745  
john.lee@osakititan.com

모의 | Enna Lee  
214-613-1630  
enna.l@osakititan.com



#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68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뉴욕의 커피숍에서 만난 사람들...

정해진 시간 없이 가끔 커피숍에 들를 때가 있다. 일로 만나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혼자서 일하기 위해 갈 때도 있다. 시간과는 상관없이 젊은이들의 모습보다는 연세드신 어른들이 삼삼오오 짝을 이루시어 테이블에 커피 한 잔씩 놓고 농익은 이야기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계실 때가 많다. 직업병일까? 글쟁이라서 그럴 것이다. 옆 사람들의 이야기가 솔솔 흘러 들어온다. 이 연세에 계신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살고 계실까. 그런 궁금증이 일어 몰래몰래 훑쳐들기에 이른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 어른들의 이야기 속에 모락모락 김이 일기 시작한다.

저 쪽 테이블을 둘러보니 두 여자분과 한 남자 분이 앉아 있다. 이야기 속에 환한 웃음이 오가는 것을 보니 편안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분명하다. 또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두 여자 분이 서로의 이야기에 킬름없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로 풀어낸다. 오늘은 오후에 방송녹화를 마치고 저녁 약속이 있어 집에 들렀다가 다시 나오기가 좀 그래서 커피숍에 혼자 와서 단팻빵 두 개와 블랙커피 한 잔을 시켜 앉아 있다. 이야기는 바로 옆이라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려오

니 듣고 있다. 둘이서 당사자가 빠진 다른 중년의 언니와 그의 남자의 이야기를 걱정 반 흥 반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아주 오래 전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누군가 모임의 자리에서 빠진 상황에서 서로 눈치보며 흥 아닌 흥을 보면서 슬쩍슬쩍 즐기던 마음 말이다. 이제는 그런 자리에 앉을 일이 거의 없지만, 혹여 앉게 되더라도 슬쩍 피어나거나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언질을 주지 않았을까 싶다. 은혜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말씀과 주신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 사는 '새 삶'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애길 해줘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오늘을 기쁨으로 맞고 보낼 수 있는 것이다.

내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관계는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챙겨줄 수 있는 마음(기도)이 필요하다. 나와 그는 아주 남남이지 않은 까닭이다.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길 기도한다. 어떤 관계에 놓여 있

더라도 말이다. 너무 가깝지 않은 거리가 중요하다.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어떤 관계에 놓였든 간에 서로에게 '숨구멍' 이 필요한 것이다. 미리 묻지 말라는 것이다. 때가 되면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털어놓을 때가 오기 마련이다. 그저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다리는 것이 답이다. 궁금증이 일거든 기억, 니은, 디글, 리을 세종이 만든 훈민정음을 끝까지 물어볼 일이다.

세상이 차갑다, 세상이 시끄럽다,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혼돈이다. 세상이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블랙홀' 에 빠져 버릴 것 같다. 모두가 아우성이다. 작은 커피숍에 앉아 나누는 이야기들도 기쁨보다는 슬픔의 이야기들이 서로 편을 가르고 있다. 서로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여유이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자랑도 가끔은 들어줄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이면 좋겠다. 남이 잘하는 것을 억지로 배우려 애쓰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반복한다면 최고의 장인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것을 칭찬해줄 수 있는 자존감 높은 여유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내 조국 '대한민국' 의 지금의 실정을

바라보면 마음이 너무도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다. 서로 속고 속이는 정치판 속을 들여다보며 누구를 믿고 믿어야만 할 것인가. 기성세대들의 가부장적 정치 속에서 젊은 청년들은 무엇을 배우고 익히고 나아가며 존경할 수 있겠는가. 한국의 뉴스를 보면서 위태위태로움의 '풍전등화' 의 격이다. 타국 멀리 떠나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울부짖으며 '대한민국' 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사 기도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어디 내 조국 '대한민국' 뿐이라.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미국' 은 또 어떠한가. 자국민들에게는 여러가지로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고아와 과부' 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끼시는 그 마음을 만나면 가슴이 아프다. 이것또한 울부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는가. 오늘도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으로 어둡고 캄캄한 터널같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 을 갖고 오늘도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최선의 날이길 기도한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봄치녀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으셨네  
하얀 구름 너울쓰고 진주이슬  
신으셨네  
꽃다발 가슴에 안고 뉘를 찾아  
오시려고.

님찾아 가는길에 내집앞을 지나시나  
이상도 하오시다 행여 내게 오  
심인가  
미안코 어리석은양 나가 물어  
볼까나  
(봄치녀, 이은상 작, 흥난판 곡)

봄치녀는 회화작품의 제목이기도 하다. 이태대화가의 작품이다. 작가는 한국전쟁 당시 월북했기에 작품이 공개되지는 못했던 모

양이다. 나역시 사진이나마 작품을 들여다 볼적엔 감탄사가 흘러 나왔다. 작품은 제목처럼 부드러운데, 움직임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작품은 화가의 부인이 모델이었다고 들었다. 마치 봄치녀가 산등성이 셋길을 타고 걷는 모습이다. 봄바람이 부는지, 치마자락이 얼핏 바람을 맞고 있다. 바람에 날리는 땀기머리 잡은 두손도 그럴 듯 하다. 뒷배경 한국시골 강산이 출렁이는 바. 진분홍 저고리와 사뭇 잘 어울려 진다.

찬찬히 작품을 드러다 봤다. 봄치녀의 살포한 분홍빛 어린 뺨이 일품이다. 수줍은 듯 아래로 향한 시선과 곱게 다문 입술은 어렵

한 미소를 머금은 듯하다. 그러나 고개턱 바람에 맞서 의연하고 당당해 보이기까지 한다. 참, 봄치녀의 손은 무척 큰듯 싶다. 흥하지 않아 오히려 고맙다.

혹자는 봄치녀의 모습이 모나리자를 떠오르게 한다고 했다. 그러나 모나리자는 정물화를 보는 듯 가만히 앉아있는데, 봄치녀는 고개를 걸어 넘으며 님을 생각하는 건 아닐까. 문외한인 내노엔 그렇게 보인다.

님은 아지랑이 타고 오시려나. 아니면 살랑 봄바람에 실려 오시려나. 님은 산등성이 고개를 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시편 104:4)

봄치녀. 한국 가곡 제목이다. 이 은상선생이 작사가이다. 노래는 가곡이라 했다만, 시조로 읽어야 마땅하다. 나한테는 그렇다는 말인데, 중학교적에 목청껏 따라 부르던 노래이기도 하다. 동요처럼

불렀던 가곡인 게다. 노래가사는 아련하다. 조용히 읊조릴 적에 정녕 봄치녀가 다가오는 듯 싶다. 봄치녀 제오시네 새풀웃을 입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폐암 환자의 30~40%는 비흡연자...미세먼지, 조리매연 주의해야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사망률 1위 무서운 폐암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호흡기내과 민 주원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폐암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폐암의 원인은 흡연이 가장 크지만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 비흡연자의 폐암 사례도 늘고 있다. 대한폐암학회가 최근 발간한 비흡연인 폐암 정보를 보면 비흡연인 폐암은 평생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거나 100개 미만의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 해당하는데 폐암 환자 중 비흡연인 비율은 약 30~40%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폐암 환자수는 2019년 10만 371명에서 2023년 12만 7950명으로 약 27% 증가했다. 남성 환자수는 2019년 6만 3110명에서 7만 7093명으로 약 22% 증가했는데, 여성 환자의 수는 동기간 3만 7261명에서 5만 857명으로 약 36% 늘어 여성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 여성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여성흡연자 증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미세먼지, 조리매연 등 주변 환경의 영향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폐는 공기 중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호흡을 담당하는 필수 기관으로 폐에 악성종양이 생기면 호흡을 방해하고, 암 진행에 따라 반대쪽 폐뿐만 아니라 혈액을 통해 간, 뼈, 신장, 뇌, 부신, 척수 등 전신으로 전이될 수 있다.

폐암은 10대 암 중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 암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암으로 사망한 환자수는 8만 5271명(남성 5만 2182명, 여성 3만 3089명)인데, 이 중 폐암 사망자의 경우 남성은 1만 3698명으로 전체 암사망자의 2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4948명(15%)을 기록하고 있다.

폐암은 흡연이 가장 큰 원인으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2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흡연을 하지 않는 폐암 환자도 늘고 있는데, 간접흡연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담배를 직접 피우는 경우 필터를 통해 나쁜 성분을 걸러내고 흡입하지만 비흡연자는 여과 과정 없이 속으로 빨아들이게 돼 발암물질 등에 노출되기 쉬운 것이다. 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대표되는 대기오염,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인 조리



흡, 라돈, 석면과 같은 유해물질, 스트레스, 가족력 등도 폐암의 원인으로 꼽힌다.

폐에는 신경이 없어 암이 생겨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는 이미 폐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체중감소와 기침, 호흡곤란, 흉통, 객혈 등이지만 비흡연자의 경우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폐암은 생존율이 낮은 위험한 암으로 꼽히고 있지만 조기에 발견해 수술하면 완치가 가능하다. 폐암 진단 후 5년 상대 생존율은 30%로 4기 이상 말기는 8.9%여서 차이가 크다. 실제 조기에 진단되는 환자는 전체의 5~15% 정도로 알려져 있다. 자각증상으로 발견이 어렵다면 최선의 방법은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이다.

현재 국가에서는 만 55세 이상에서 30년 이상 매일 담배 한 갑 이상을 피운 고위험군에게 매년 저선량흉부 CT를 권고하고 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아도 가족력이 있거나 만성폐쇄성폐질환 또는 폐성유동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도 정기적으로 폐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흡연자라면 금연을 해야 한다. 금연을 할 경우 약 5년째부터 폐암 발생위험이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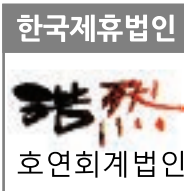
소하기 시작해 10년이 지나면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절반으로 감소하고 15년 정도 금연하면 비흡연자의 1.5~2배로 줄일 수 있다.

폐암 고위험군이 매년 검진을 한 경우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평소 폐가 좋지 않다면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과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으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나 조리매연이 많은 음식 조리 시에는 마스크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

“폐암 환자의 30~40%는 비흡연자...미세먼지, 조리매연 주의해야”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ee@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Letterly

보스톤코리아

# 보스톤코리아 창간 20주년 기념, 온라인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

좋은 글쓰기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다면  
좋은 읽기 및 글쓰기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 아이들의 English 읽기, 글쓰기 실력이 걱정되세요?

미국 대학 입시의 성패는 결국은 글쓰기로 좌우됩니다. 대학들은 커먼 에세이, 주제별 글쓰기, 긴 글쓰기부터 짧은 글쓰기까지 모든 것을 원합니다. 특히 어려운 것은 짧은 글쓰기로 주제에 따라 정확한 답변을 명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쓰기 훈련이 제대로 안 된 학생들은 대학입시를 앞둔 11, 12학년 때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그 이후 커리어에서도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 글쓰기를 어떻게 배우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 3주간 아이의 글쓰기 실력이 확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보스톤코리아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영어 작문 전문 교육기관인 Letterly와 손잡고 온라인 보스톤코리아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를 개최합니다. 영어 글쓰기 교육기관인 Letterly는 Robinhood, Epipelagic Ventures 등의 벤처 투자를 받은 전도양양한 영어교육 스타트업입니다. 글쓰기 교사들은 모두 하버드와 유펜 등 명문대 출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월말까지 등록시  
**10% 할인**

## 보스톤코리아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란?

창간 20주년을 맞은 보스톤코리아는 영어 글쓰기 교육기관인 Letterly와 손잡고 여름 방학동안 자녀들의 영어 읽기와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보스톤코리아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는 3주 동안 주 5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대1 글쓰기 선생님과 매일 정해진 글을 읽고 주어진 주제에 따라 한편의 기사 또는 에세이 글을 작성합니다. 선생님의 피드백을 활용하여 논리를 강화하고, 문장을 더 명확하게 하며, 글을 완성도 높게 수정합니다. 이 글들은 선생님들의 2차례 피드백을 받아 논리를 강화하고 문장을 더욱 명확하게 하며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편집 수정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매주 한차례씩 선생님들과 라이브 온라인 미팅을 통해 수정과정을 지도받습니다. 완성된 글들은 letterly 온라인 매거진과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 출판되어 게재됩니다. 학생들의 작문 실력은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성장 과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특징

기간: 3주간 집중 프로그램 (6, 7, 8월 3차례)  
6월 9일 - 27일, 7월 7일 - 25일, 8월 4일 - 22일  
수업 방식: 온라인 1:1 맞춤형 지도  
일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교육 내용:  
매일 지정된 글 독해  
주제별 기사 및 에세이 작성  
전문 코치의 이층 피드백  
주 1회 라이브 온라인 미팅을 통한 수정 지도

### 특별 혜택

-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한 학생 개인별 성장 과정 모니터링
- 전문가의 체계적인 피드백을 통한 글쓰기 실력 향상
- 완성된 글은 Letterly 온라인 매거진과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 게재
- 우수작품 선정 보스톤코리아 장학금 및 작품 게재

### 기대효과

- 논리적 사고력 강화
- 명확한 문장 구사력 향상
- 전문적인 글쓰기 편집 기술 습득
- 실제 출판 경험을 통한 자신감 향상



The 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presents



# KSEA NMSC 2025

## 전국 수학 & 물리 경시대회

수학 시험 4-11학년

**2025년 4월 5일**

오후 2:00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등록 마감 2025년 3월 31일

<https://nmisc.ksea.org>

Sponsored by



# ▶▶ MFA 에서

# 만나요 ▶▶ 봄 이 이벤트

▶ 아트 ▶ 프로그램 ▶ 이벤트 ▶ 커뮤니티 ▶ 아트 ▶ 프로그램 ▶ 이벤트 ▶ 커

## 특별 이벤트

### 노루즈

- ▶ 3월 20일 목요일
- ▶ 오후 5-10시
- ▶ 입장료 5달러



## 특별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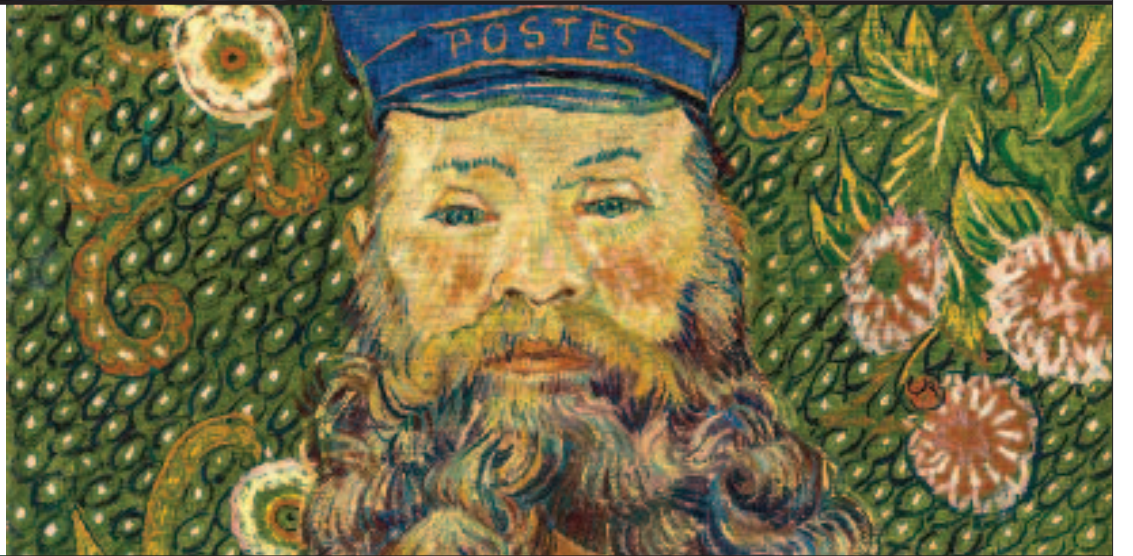
### MFA 레이트 나이트

- ▶ 3월 28일 금요일
- ▶ 오후 8시-새벽 1시

## 전시

### 벤 고후: 롤린 패밀리 초상화

- ▶ 3월 20일 오픈



# MFA Boston

▶ Museum of Fine Arts, Boston  
465 Huntington Avenue, Boston, MA 02115



Nowruz: Caitlin Cunningham Photography MFA Late Nites: Tim Correira Photography  
Vincent van Gogh, *The Postman Joseph Roulin*, 1889. Oil on canvas.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Gift of Mr. and Mrs. William A. M. Burden, Mr. and Mrs. Paul Rosenberg, Nelson A. Rockefeller, Mr. and Mrs. Armand P. Bartos, The Sidney and Harriet Janis Collection, Mr. and Mrs. Werner E. Josten, and Loula D. Lasker Bequest (all by exchange), 1989. Photo Credit: Digital Image © The Museum of Modern Art/Licensed by SCALA / Art Resource, NY.

▶ 방문은 [mfa.org](http://mfa.org)에서 시작하세요

# 2025 정기 교사 연수회·사은회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자랑스러운 세계 리더”를 키우는 한국학교의 역할과 미래

일시 : 2025년 3월 29일 토요일 오후 2:00-8:00

장소 : 보스턴 장로교회 (2 Main St. Hopkinton, MA)

## 1부 교사 연수회

- 전체강연 1 : 린다 챔피언(Linda Champion 변호사/NE시민협회 회장)
- 전체강연 2 : 허봉량 선교사 (Wycliffe 대학교 명예 신학박사)
- 우수교사·장기근속 교사·개교 20주년 이상 학교 시상식
- 1부 교사 연수회가 진행되는동안 동반자녀(3세 이상부터) 놀이방 운영

## 2부 교사 사은회

- 저녁식사
- 우수배우자상 시상식
- 추억의 전통 놀이
- 경품 추첨





참가신청 : QR코드(구글폼 작성)


참가비 : \$15/1인 & 교사 가족동반(무료)

신청 마감 : 3월 16일까지 (16일 이후 신청자 및 비회원교는 \$20/1인)

문의 : naks.ne.us@gmail.com

주최: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후원:  주보스턴총영사관

 재외동포청

 NAKS-NE 이사화교장단

 보스턴코리아